



音樂教育研究 제20집, 2001.

음악과 창작수업의 교육적 효과

석 문 주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韓國音樂教育學會

음악과 창작수업의 교육적 효과

석 문 주

차 례

- I. 연구의 목적
- II. 창작수업 개발 및 실천
 - 1. 연구대상 및 기간
 - 2. 창작수업 개발
 - 3. 연구방법
- III. 창작수업의 효과
 - 1. 음악적 능력
 - 2. 반성적 사고력
 - 3. 음악에 대한 태도
 - 4. 창작수업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사의 반응
- IV. 시사점

I. 연구의 목적

최근 학습에 관한 관점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이론을 전개하는 것 보다 학습을 구성하는 것 즉, 학습자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 단순히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동화시키는 것 - 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은 학습자가 정보를 선택하고(select), 보유하고(retain), 변형시키며(transform) 나아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Bruner).'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경험을 더해가므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한다. (Brooks, 1992: 4, 재인용). 학습자들이 학습하여야 할 대상이 객관적인 체계로 존재한다는 객관주의 패러다임과는 대조적으로 구성주의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나 그 의미는 우리 인간에 의하여 부여되고 구성된다고 본다. 학습을 자극시키는 교사의 중요한 역할

을 근거로 하면서도 학습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학습자는 교사로부터의 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켜 능동적으로 의미를 조정한다. 즉, 학습자는 능동적인 구성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학습할 내용의 구조화와 이 체제의 습득을 강조하는 객관주의 학습이론에 비하여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현실세계와 동일한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사건이나 사물, 개념 등이 활용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엘리엇(Elliot)은 '인간은 행동하면서 배운다' 고 한다(1995: 55). 인간의 모든 지식은 그의 행위(action)를 통하여 나타나며, 인간의 사고(thinking) 역시 행위의 과정에서 행동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는 '행위 속의 지식'(knowledge in actions), 또는 '행위 속의 사고'(thinking in action)라고 하고, 음악적인 지식이나 음악성(musicianship)은 음악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음악의 개념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고, 불변의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한다. '음악작품'이 음악이 아니라 '음악하기(musicing)'¹⁾가 음악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물이 음악이 아니고, 인간이 직접 음악을 하는 행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음악관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으며, 학교교육에서 '음악하기' 그 자체의 중요성을 깊이 고려하게 해주었다. 그는 작곡, 편곡, 연주, 즉흥연주, 지휘 등의 음악 활동이 음악 교육의 목적이며, 이러한 음악 활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음악성이 성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초점이 음악적 개념의 습득이나 음악적 기능습득에 있다기 보다 '음악하기(doing music)' 에 있을 경우 음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음악시간은 1)창작하기(creating), 2) 연주하기(performing), 그리고 3) 행한 것을 서술하기(describing) 와 같은 세 가지 '하기'중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리듬이나 가락과 은 기본 개념이나 기능 습득은 독립적으로 학습될 무엇이라기 보다, 진행중인 '하기'의 한 연장(extension)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습득되어야 할 무엇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주, 창작, 감상활동은 단지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음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음악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은 학생이 직접 음악을 실행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창작은 음악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하여 탐구하는 음악활동이다. 학생들은 누구나 음악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수업에서 습득한 음악적 개념을 활용하고, 자신의

1) 엘리엇은 음악의 실체는 작품이나 작곡이 아니라 '음악 만들기(music-making)'라고 하고 행위와 활동을 강조하는 '음악하기(musi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가 말하는 '음악하기'는 행위의 의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학생 자신의 방식으로 악곡을 표현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창의성이 개발되고 신장될 수 있다. 음악 수업에서 즉흥적인 창조 활동이나 작곡 활동은 창작 활동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 활동을 거침으로서 음악적 개념을 쉽게 습득하고 이해하게 된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음악의 형식, 구조, 리듬, 화성,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양식 등 음악적 개념을 가창, 기악, 감상활동을 통하여 학습하고, 음악적 개념의 실제적인 응용은 창작활동을 통하여 경험한다. 음악수업에서 개인별로 혹은 그룹으로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이 신장된다.

학생들이 만든 곡은 연주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는 자신의 음악을 듣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음악적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창작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음악수업에서 학생은 곡을 만들고 만든 곡을 반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창작활동은 단지 수업의 전 과정 중 마지막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정 전체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중심의 형태가 요구된다.

포트폴리오 평가(portfolio assessment)는 장시간에 걸친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실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반성의 자료를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평가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돕는 매우 유용한 평가방법이다. 학교의 음악수업에서 음악적 기술의 성장은 수업과정을 통하여 발전되며, 교사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봄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 있다. 평가의 목적이 개인을 위한 수업을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음악 포트폴리오는 시간을 경과하면서 개인의 변화, 발전과정을 전체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할 결과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용한 전략도 볼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이 만드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음악적 이해와 기술이 구현되고 발전되어 가는 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창작수업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창작수업을 재구성하여 창작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평가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적용하였다. 창작수업을 경험한 학생과 교사의 어떠한 면이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문제 제기를 하였다.

- 1) 창작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2) 창작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3) 창작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4)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5) 창작수업과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하여 교사는 어떠한 반응이 하였는가?

II. 창작수업개발 및 실천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음악수업에서 창작 활동을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으며, 전체의 1/2 이상의 학생이 방과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담임교사는 20여년 간의 경력을 가진 여교사로서 음악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연수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사이지만 창작수업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았다. 전통적인 수업과 평가방법에 익숙해 있는 교사를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연구자와 함께 창작수업과 포트폴리오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하며 새로운 수업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3월부터 12월까지 1학기과 2학기로 나누어 총 12회의 창작수업을 하여 자료를 얻게 되었다.

2. 창작수업 개발

1) 창작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

연구자와 교사가 협동하여 창작수업과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수업을 실행하는 동안 연구자와 교사는 매시간의 교수(teaching), 학습(learning), 평가(evaluating)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적 개념의 이해, 음악적 기능의 발달, 반성적 사고의 발달 기회를 제공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에서 습득한 음악적 개념을 창작활동에 활용하여 음악적 이해를 높이고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하고, 기보하고, 논의하고, 반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수업 중에 창작품을 만들고, 연주하고, 평을 하고, 곡을 만든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왜, 어떻게, 무엇을' -에 대하여 답을 하며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한 것이다. 좋

은 작품을 위한 계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이 만족하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선택을 하였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서 무엇을 했는 가’, ‘덜 만족스러운 것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하였다. 작품을 만든 후에는 작품을 연주하며 자신의 작품을 듣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으며 자신이 선택한 음악적 효과가 어떠한 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자신의 작품을 들은 후에 ‘무엇을 들었는가’, ‘계획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되었는가?’, ‘어느 부분을 고치고 싶은가?’, 등의 질문을 하며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욱 구체화시키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을 하는 데 왜 그러한 생각을 하였는가?’, ‘학습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배우는가?’ “다음 작업에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자신과 다른 학생의 작품 연주를 들으며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작활동에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 교사의 질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이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창작 포트폴리오 평가의 틀과 평가내용 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실행하였다.

2) 창작수업 시나리오 개발과 포트폴리오 구성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이 음악수업에서 창작활동을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연구자는 창작수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어떤 수준의 창작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학생에 맞추어 수업을 전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5학년의 학습내용과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창작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창작활동인 즉흥연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작곡활동으로 발전시켰다. 5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작활동, 평가방법, 수업방식(협동학습)을 적용하는 데 있어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고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업환경에 점차 잘 적응해 가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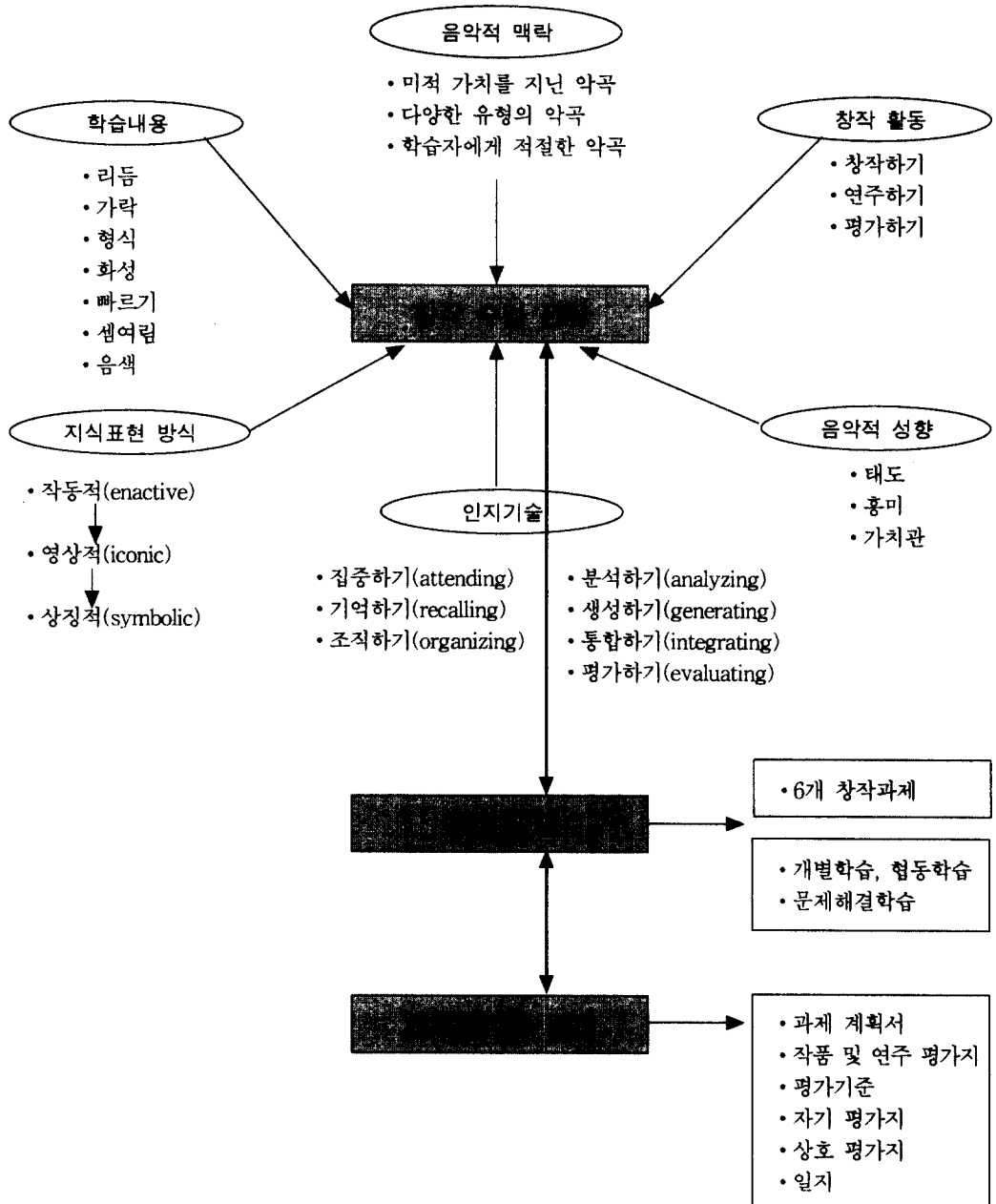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창작수업 전략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음악적 맥락(context), 음악 학습내용(content), 음악 학습활동(activity), 인지기술(cognitive skills), 지식 표현방식(mode), 음악적 성향(disposition)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²⁾.

2) 보드만(Boardman)은 Generative Approach(생성적 교수이론)에서 6가지 요소 - 음악적 맥락(context), 학습 내용(content), 활동(behavior), 지식 표현 방식(mode of knowledge), 인지 기술(cognitive skills), 학습환경(attitudinal climate)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의 원리는 6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함으로써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보드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창작학습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창작수업은 단순히 리듬을 만들고 가락을 만들어 적는 창작수업이 아닌 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반성적 사고력의 발달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학생중심, 활동중심, 통합중심, 협동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간단한 리듬창작, 가락창작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형식에 대한 창작학습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과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수행과제는 '가사 바꾸기', '리듬문답하기', '가락문답하기', 'ABA형식', 'Rondo 형식', '변주곡형식'과 마지막 수행과제로는 '학생이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창작하기'를 통한 수업활동이 전개되었고, 대부분 2차시 수업용으로 개발되었다. 창작수업을 위하여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위의 수업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포트폴리오는 1)창작활동을 위한 과제, 2) 학생의 창작품, 3) 창작품의 연주, 4) 창작품 및 창작품 연주에 대한 평가척도, 5)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자기반성 일지 및 상호평가지, 6) 일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에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자료는 학생 스스로 수집하게 하였다(그림 1참조).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와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매 수업에 대한 수업안과 포트폴리오 내용을 구성하였다. 매 수업 실시 후 연구자와 교사가 학생의 대한 반응, 교사의 수업 내용, 과제, 포트폴리오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계속 보완·수정 작업을 거치며 창작수업을 실행하였다.



<그림 1> 창작수업의 구성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창작수업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업관찰, 학생 포트폴리오 분석, 교사와의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실제 수업이 전개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닌 경험과 변화를 기술하기 위하여 수업 관찰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수업과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교사의 경험을 면담하였다.

(1) 수업관찰

본 연구는 창작수업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어서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관찰하며 수업이 전개되는 전반적인 활동과정을 기록하면서 창작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반응을 관찰, 기록하였으며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수업의 특성상 비슷한 유형의 수업이 반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과제를 실행할 때 수업을 관찰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수업 관찰 시에는 학생들의 창작과제의 실행,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포트폴리오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창작수업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음악적 능력의 변화, 반성적 사고, 음악에 대한 태도, 음악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반응, 개인별 혹은 모둠별 창작성 평가, 개인별 혹은 모둠별 연주 평가, 수업 참여 등을 분석하였다.

(2) 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실시한 교사와 심층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와의 면담내용은 ①창작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②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행하면서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한 면담을 하였다.

(3) 학생 포트폴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한 분석자료가 되었다.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철하는 것이다. 창작 학습지, 학생들이 산출한 개인별·모둠별 창작성, 창작성연주, 평가척도, 자아평가지, 상호평가지, 일지 등을 수집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였다.

Ⅲ. 창작수업의 효과

1. 음악적 능력

1) 음악적 이해와 문제 해결력

창작수업에서의 과제의 실행은 창작학습지를 활용하였다. 창작학습지에는 과제와 창작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순서적으로 따르게 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능력은 거의 없고, 음악시간을 단순히 노래나 따라 부르고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첫 시간에 창작학습의 기초적인 리듬학습을 하고, 리듬꼴 따라 치기를 하며 여러 가지 리듬꼴을 배우고 이를 활용한 간단한 리듬꼴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리듬 창작에서 악보에 적는 것보다는 먼저 교사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하여 손뼉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양한 응답을 통하여 리듬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음악에 대하여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리듬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 것은 영상적 표현방식의 그림악보의(● ———) 활용이었다. 자신이 응답한 리듬을 색종이로 길이를 표시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색종이 1장이 4분 음표, 1/2로 자른 것이 8분 음표이며 8분음표 두 개를 묶으면 4분 음표이고, 색종이 2장을 묶은 것이 2박자(2분 음표)라는 것을 보면서 음길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리듬꼴의 구성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자신이 연주한 것을 음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림악보를 활용하였는데 학생들은 쉽게 리듬꼴(길이) 개념을 익히게 되었으며 간단한 리듬과 가락창작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형식의 작품에도 이를 활용하고 매우 즐겁게 참여하였다. 리듬창작과 가락창작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정과 리듬이 정확해지게 되었으며 음악을 듣는 능력이 많이 발전하였다.

2회의 리듬창작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게 되었으며, 음악적 요소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음악 전체 안에서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창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창작경험은 학생들의 음악적 개념 습득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음악적 개념을 습득하였을 때 학생들은 창작활동을 더 잘하게 되었다.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가 어떻게 상호관련성이 있고 함께 어울려져 있는 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하신 리듬과 나의 리듬을 합해서 하였더니 정말 소리도 좋았고 재미있었다. 두 가지 리듬이 잘 어울리는 것이 좋다.”

“음표나 박자 같은 것은 알지 못했는데 창작을 하면서 잘 알게 되었다.”

“4학년때 보다 음악의 종류와 음악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음악시간에 여러 가지 소리와 그림을 사용하여 창작을 하니 신기하다. 너무 잘한다.”

“2/4박자의 리듬에 가락이 잘 어우러졌다.”

“변주곡형식의 리듬, 가락, 빠르기 변화를 하였다. 여러 가지 변화를 해보니 음악이 각각 다르게 느껴졌다.”

“악보를 만드는 능력이 발전되었어요.”

“빠른 리듬을 A에, 느린 리듬을 B에 썼는데 다른 모듬은 악기를 사용하였다. 똑같은 형식의 곡인데 다르게 들렸다.”

학생들의 창작과정의 변화와 창작을 하는데 있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는 가를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음악 과제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음악적 지식을 활용하며 음악적 개념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주어진 과제를 실행하며 문제의 해결방법은 다양하며 오랫동안 축적된 음악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1학기에 가사 바꾸기, 리듬창작, 가락창작, 모듬별로 곡을 만들어 연주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창작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의 창작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지한 태도는 2학기에 형식을 활용한 창작을 하였을 때부터 나타났다. 여러 가지 새로운 음악적 요소(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를 활용하여 형식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으며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곡이 어떠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ABA형식을 만드는 과제에서는 어떤 모듬은 목소리, 신체표현, 악기로 다양한 음원을 활용하는 모듬이 있었으며, 어떤 모듬은 A부분은 목소리, B부분은 리듬악기만을 다시 A에서는 목소리와 리듬악기를 함께 사용하는 모듬이 있었다. 점차적으로 가락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셈여림과 빠르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을 하게 되었다.

ABA형식을 바탕으로 론도형식과 변주곡형식의 곡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제들은 감상수업과 통합하여 지도하였는데, 감상수업에 학습한 음악요소를 이해하여 창작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유명한 작곡가의 곡과 같은 형식의 곡을 쓴다는 것에 학생들은 매우 좋아하고, 자신의 작품을 듣고 수정하는 작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또한 다른 곡을 감상하였을 때 그 곡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를 더 잘하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원하는 형식의 곡을 선택하여 만들게 하였는데 오랫동안 고심을 하여 자신에게 맞는 곡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음악적 이해와 기능이 나은 학생들은 주제를 변형시키는 변주곡형식을 지었으며 자신의 곡을 음악용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내가 원하는 형식의 곡을 지을 수 있게 되니 재미있어요.”

“만든 곡이 느렸어요. 다음에는 빠르고 경쾌한 곡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모듬은 빠르기를 변하게 했는데 연주를 해보니 여러 성부의 박자와 리듬이 잘 맞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경쾌한 곡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 빠르면 안될 것 같아요.”

“악기소리를 사용하여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악기로 해야겠어요.”

“처음에는 창작하는 것이 지겨웠는데 여러 가지 악기와 소리를 사용하니 재미있어요.”

“리듬창작도 재미있었지만 여러 가지 악기소리를 사용하여 ABA형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ABA형식, 론도형식, 변주곡 형식을 만들었는데 변주곡 형식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가락을 잘 바꾸고, 코다를 잘 만들고 싶어요.”

“모차르트 곡을 듣고 론도형식을 배웠는데, 악기와 가락에 변화를 주어 형식이 구별이 가게 했어요.”

“변주곡의 연주를 들어보니 가락의 흐름이 부드럽고, 주제를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했어요.”

“가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화음을 잘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다른 곡을 많이 들어보고 곡을 만들어야겠어요. 어떤 곡이 좋은 지 알아봐야겠어요.”

2) 연주능력

학생들이 만든 곡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기회를 주어 자신의 선택한 음악적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연주실력이 향상되고 점차로 정확하게 연주하고 자신감을 갖게되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며 점차적으로 음악적 귀가 열리게 되었다. 특히,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하게 되었으며, 모듬으로 연주할 때는 다른 모듬원의 연주를 들으며 소리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창작을 하면서 나의 노래실력이 너무 발전했어요. 음정도 정확해지고 리듬도 정확하게 부르게 되었어요.”

“리코더를 잘 불게 되어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니 재미도 있고 악기연주실력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면서 좋은 소리가 낼 수 있게 되어 재미있어요.”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해야겠지요.”

“내가 만든 곡을 불러보니 가락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부르지 못했거든요. 아마 실로폰으로 연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만든 곡의 연주를 위하여 음악을 기보하여야 되고, 악보를 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모듬으로 연주할 때에는 다

른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하고 함께 연주할 때의 연주 방법과 연주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연주할 때 듣는 태도가 매우 진지해지고 조용해졌으며, 남을 인정하는 태도, 복돋워주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처음에 창작경험이 없던 학생들이 1년이 지난 후에는 창작능력 뿐만 아니라 연주, 청음, 감상, 독보능력이 발전하였다.

“음악을 듣고 적을 수 있고, 짓게 되었다.”

“곡을 만드는 것이 다른 음악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늘어서 곡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음악을 많이 들어야겠다. 멋있게 연주하고 싶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다.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

“우리 모듬의 친구들의 연주가 처음에는 잘 맞지 않았다. 지금은 서로를 보면서 잘 맞추어 연주를 한다. 연습을 할 때 악보를 보면서 잘 맞추도록 하였다.”

“친구의 연주가 훌륭했다. 연주도 정확하게 하고 잘 했다.”

“여럿이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연주하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잘 안 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략을 세워 실천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학생은 제 1차 리듬 창작의 평가에서 나의 작품을 평가한 내용에서 “박자가 맞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그 후 제 2차 리듬창작에서 “3/4박자 리듬을 만들었는데 3.4마디가 1.2마디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모듬으로 작품을 만들어 연주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실천한 예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모듬은 창작품을 연주를 한 후 작품과 연주의 잘 된 점, 잘 못한 점, 앞으로의 계획을 적는 난에 “우리 모듬은 호흡이 잘 맞았다. 리듬이 정확하게 연주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리듬을 정확하게 연습을 한 후에 연주해야겠다.”고 기록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한번에 시작하지 못했다. 호흡을 맞춰서 2차 연주에는 1차 연주보다 더 듣기 좋도록 소리가 나도록 해야겠다. 쉬는 시간마다 호흡을 잘 맞추도록 연습하겠다”고 1차 평가와 전략을 세운 후, 2차 평가에서는 “악보를 보며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냈다. 여러 가지 악기소리가 잘 맞았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많은 예를 통하여 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이 잘 안 되는 점을 찾아 계획을 세우고, 실제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연주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반성적 사고력

창작과제를 수행하고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하며 반성적 사고력이 발

달하게 되었다. 포트폴리오에 수집되는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정을 보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교사의 등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반성적 효과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학습활동의 주도자가 되었다. 학생 포트폴리오에는 처음의 작품보다 나중의 작품에서 음악적으로 향상이 되었으며,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반성한 내용이 있어 창작학습을 통하여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가 누적되어 있었다. 연주와 창작품에 대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다음 작업에 반영하였다.

“나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아마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모듬은 목소리를 사용하였는데 다른 모듬은 여러 가지 악기와 다른 가락을 사용하였다. 우리 작품과는 매우 달랐는데 특히 실로폰소리와 가락이 잘 어우러졌다.”

“**모듬은 A부분에서 화음이 잘 맞았는데, &&모듬은 A부분에서 2가지 악기소리를 다르게 해서 특색이 있었다.”

“A부분이 화음이 어울리지 않아서 화음의 조화를 고쳐보겠다.”

“A부분과 B부분의 빠르기를 고쳐서 연주해야겠다.”

많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자기 평가나 친구 연주의 평가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은 좀 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을 하고, 비평을 하였다. 예를 들면, 자기 평가가 상호평가에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xx팀이 잘했어요”, “xx팀이 잘 맞았어요”등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자기 모듬의 잘된 점과 고칠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다른 모듬이 잘한 점, 지난번보다 나아진 점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관이 정립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막연히 답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음악적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였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노래에 가사가 잘 맞았다. 부족한 것은 목소리가 작았다.”

“빠르기가 틀려서 연주가 잘 되지 않았다.”

“코다 부분이 독특하고 잘 되었다.”

“마디와 마디사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뻣뻣한 느낌이다.”

“리코더 소리와 곡의 분위기가 잘 맞았다.”

“ABA으로 지었는데 A의 주제와 B의 주제가 다르게 잘 지으니 형식이 잘 구별되었다.”

“끝나는 느낌과 계속되는 느낌을 주도록 가락을 잘 지었다.”

“변주곡인데 주제를 잘 살려 변화시켰다. 각 부분이 잘 바뀌어서 뚜렷하게 잘 나타났다, 리듬변주가 잘 되었다.”

“변주 1과 변주 2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서 보다는 수월성의 내재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른 동료나 모둠과 비교하여 경쟁심을 갖게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학습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협동학습은 모둠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대안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견해의 차이점이나 갈등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된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과는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는 모둠원들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창작수업에서의 협동학습은 모둠원들간에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고 서로 돕는 협동심과 능력에 따라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동업자, 협력자가 되었다. 자기 평가와 상호평가를 통하여 모듬으로 작품을 만들고 연주하는 것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듬원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하므로 자기 몫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서로 진지하게 의논하여 연주하고 서로 도와주고 연주를 잘 못하는 친구를 비롯기보다는 같이 연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연주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습하여 다음 시간에 다시 연주하기도 하였다. 협동학습을 통해서 동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면서 수업을 더욱 즐겁게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친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럿이 연주하니 호흡도 잘 맞고 보람이 있었다.”

“여럿이 의논을 하며 창작을 하니 친구들과 우정과 협동을 쌓게 되어 기분이 좋다.”

“같이 연습하다 보니 내가 못하는 점을 알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연주하니 보람을 느꼈다. 내년에도 같이 모여서 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다른 친구들의 격려의 말과 도움말이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지적해 주어서 그걸 보고 고칠 수 있게 해주어서 좋다.”

“친구들의 도움이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음악에 대한 태도

창작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도전적이 되었다. 작품을 정확하게 연주하였고, 모듬으로 연주하는 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하였다.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로서의 음악 전문가적 역할을 공감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며, 자아표현과 자아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음악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의 반응을 학생들의 일지에 썼다.

“나는 5학년에 들어와서 음악에 관심이 100점이 되었다. 그리고 창작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내가 작곡가가 된 것 같다.”

“음악을 듣기 싫어 했는데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학교에 오는 것이 재미있다.”

“음악이 싫었는데 음악에 푹빠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혼자서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음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꿈은 피아노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창작을 내가 배운 것처럼 가르쳐 주고 싶다.”

“내가 곡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음악을 많이 들어야겠다.”

“음악시간은 노래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것만 있는 알았는데 내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니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었다.”

“친구들과 같이 하니 재미있고 고맙다.”

포트폴리오에 1년 동안 창작수업을 한 소감을 일지에 쓴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진지하였다.

“저는 5학년이 되어서 여러 노래(음악)를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은 것도 기분 좋은데 창작이라는 수업도 함께 하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창작(작곡)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 누가 지어보라면 이제 지을 수 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또 고마워요.”나는 내가 창작한 것을 책으로 편집했다. 내가 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니 기분도 좋았다. 이 글은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제가 쓴 것과 만든 것을 책으로 엮어서 너무 신나고 좋았고 여태껏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소중함을 간직할 것이고 또 자랑하고 영원히 마음속에 담을 것이고 창작을 해서 리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박수치거나 악기로 연주할 때는 신이 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창작을 한 선생님의 꾸준한 지도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여태까지 음악에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창작을 배우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 지금까지 재미있었는데 오늘 이 순간에 끝나버리니 아쉽다. 앞으로 음악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어떤 학생은 창작도 잘하고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지겹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을 학습지를 모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창작학습은 재미있지만 포트폴리오의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는 것에는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았다.

“창작을 마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 왜냐하면 그 하기 싫었던 학습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다시 창작을 만날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6학년 때에도 올해처럼 이런 즐거운 창작을 또 해서 많은 실력을 늘렸으면 좋겠다.”

“창작학습지를 하지 않게 되어 좋다. 창작은 재미있는데 학습지는 지겨웠다.”

4. 창작수업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사의 반응

교사와 창작수업과 포트폴리오평가를 실행하면서 생각한 것을 면담하였다. 교사는 창작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이 향상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창작능력뿐만 아니라, 감상과 연주능력이 발전되었으며 음악적 개념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갖고 흥미로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친구들과의 협동학습을 통하여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색종이 리듬을 활용하여 리듬을 익히고 창작하는 활동은 리듬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리듬감이 정확해지고 귀도 발달하게 되었다. 리듬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그림을 활용한 가락 창작, ABA형식을 할 때 자신의 음악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창작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창작능력, 연주능력의 향상을 보면서 정말 놀라왔다.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잘된 점과 고칠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다른 조의 나아진 점, 고칠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수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진지해졌다.”

“협동학습을 하면서 모둠원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자기 몫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의논하여 작업을 하고 연습을 하였다. 평가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왜 잘되고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안목이 키워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정말 아름다웠다”

“**는 다른 수업시간에는 잘 하지 못하였는데 음악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고 열심히 참여하였다. 집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음악재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수업과정에서 개개의 학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일일이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교사는 포트

폴리오의 증거자료를 보면서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만든 창작품, 연주, 일지, 자기평가지 등을 분석하며 학생 개개인이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대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앞으로의 수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과 교사 자신이 교수(teaching)에 대한 반성을 하여 교사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는 학생의 개인차에 맞는 교수방법과 자료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 발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보니 다양한 학생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일지나 자기 평가지를 보면서 학생 개개인이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학급 전체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어 수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도움말을 주고, 장난을 치며 연습을 소홀히 하거나 모둠별로 연주할 때 협력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격려나 충고의 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도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수업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포트폴리오는 음악수업에 매우 중요한 꼭 필요한 평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략이다 ”

“음악 포트폴리오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평가하는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 및 가치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평가를 현장에 실천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들도 있다고 하였다. 교사의 반응은 우리 교육 현장에 새로운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지나 자기 평가지, 학습지를 매번 만들어야 하는 점과 그 많은 양을 복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어느 한 영역에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지마다 교사의 도움 말을 써 주는 것도 교사에게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록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의욕이 적고 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다. 포트폴리오의 증거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기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능하면 기록의 양을 줄이고 매 시간 많은 양을 기록하기 보다 기록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일지, 평가지 등 다양한 양식이 개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지나 학습지, 평가지 등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교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학습내용이 학습자 자신들의 경험이 될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학습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들 스스로가 가장 좋은 교사가 된다.”

IV. 시사점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창작수업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수업관찰, 교사면담, 학생포트폴리오를 통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창작수업은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 문제해결능력, 반성적 사고력이 발달될 수 있는 사고하는 수업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이해와 기능이 발달하게 되며,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

둘째, 창작수업은 긍정적인 음악적 태도와 협동적인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창작수업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아표현과 자아확신을 갖게 된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한 학생들간의 협력적 관계형성을 통한 수업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음악과 평가는 학생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될 때 음악수업에서의 평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음악과 평가도 단지 수업의 전 과정 중 마지막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정 전체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중심의 형태가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음악적 발달에 대한 증거를 더 깊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평가방법인 것이다. 단순히 교사는 평가하고 학생은 단순히 평가받는 형태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수업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며, 학습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게 하는 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파악하고 자아확신(self-confidence)을 갖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작수업에서의 포트폴리오의 활용은 음악과 평가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1997.
- 석문주 외. 학습을 위한 수행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용숙 · 김영천.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 조용기. '참평가'. 학습을 위한 수행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조용환.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출판사, 1999.
- Barnburg, J. (ed.). Assessment how do we know what they know?. Dubuque, IO: Kendall/Hunt Pub, 1993.
- Bresler, L. & Stake, R.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music education." In R. Colwell(ed.),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Reston,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2.
- Bresler, L. Guest. Editorial.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22, 8 - 11, 1994.
- Bergethon, B., Boardman, E. and Montgomery, J. (6th ed.). Musical Growth in the Elementary School. Orlando, FL: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97.
- Brown, C. "Capture the portfolio: Episodes of student musical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Middle School Association(nov. 4 - 7, 1993) (ERIC ED 375 030), 1993.
- Brooks, J. & Brooks, M. In search of understanding: The case for constructivist classroom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3.
- Danielson, C. & Abrutyn, L. An Introduction to Using Portfolios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7.
- De Fina, A. Portfolio Assessment. New York: Scholastic Inc, 1992.
- Einer, E.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past, present, perils, promis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0. 8 - 16, 1996.
- Hewitt, C.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in fine ar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Apr.12 - 16, 1993) (ERIC ED 358 166), 1993.

- Hearne, J. "Portfolio assessment: Tracking its implementation and use in one elementary school." In J. Bamberg(ed.), Assessment how do we know what they know?. Dubuque, IO: Kendall/Hunt Pub, 1993.
- Gardner, H. Frames of Mind, 1993.
- Goolsby, T. "Portfolio assessment for better evalu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nov. 3 9 - 44, 1995.
- Gray, L. "Portfolio assessment: the Arts Propel project." *General Music Today*, spring, 9 - 14, 1993.
- Holubec, E., Johnson, D. & Johnson, R. Cooperative learning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4.
- Jasmine, J. Portfolio Planner. Huntington Beach, CA: Teacher Created Materials, Inc, 1995.
- Radocy, R. (1992).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Why the fus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122, 1994, 1992.
- Seog, M. "Portfolio Assessment in Music Education." In E. Choi(ed.),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of music education research*. Seoul: Korean Music Educational Society, 1998.
- Sullivan, M. Making Portfolio Assessment Easy. New York: Scholastic Inc, 1993.
- Shaklee, B., Barbour, N., Ambrose, R. & Hansford, S. Designing and Using Portfolio.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7.
- Smith, J. (1995). "Using portfolio assessment in general music." *General Music Today*, 9(1), 8 - 12, 1995.
- Winner, E. (ed.) Arts Propel: An introductory handbook. Harvard Project Zero an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92.
- Winner, E., Davidson, L. & Scripp. L.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 Harvard Project Zero an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92.

ABSTRACT

The Effects of Composing in a music class setting

Moonjoo Seo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effects of composing in music class for the fifth grade students in a elementary school. For the research, the researcher was constructed the teaching strategies for composition class, the specific tasks to develop the students' creativity, and portfolio as an evaluation tool. The subjects received music instruction from a classroom teacher for 45 minutes twice per week from March to December, 1997. All the class was videotaped for assessing and maintaining a record of both individual and class progress. Based on the results, what aspects of students and teacher changed was analyzed: 1)musical understanding, 2) performance ability, 3) reflective thinking, 4)music attitude, and 5) teacher's reponses to composition class and portfolio.